

한양도성과 순성놀이

한양 도성은 못 사람들에게 반가운 존재였다. 보부상들은 제 자식을 배부르게 하려 성문을 제 집 마냥 나다녔다. 성 밖은 위험한 곳이다. 제 집에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가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면 더 위험했다. 짐승들이 그르렁 거리는 숲 속을 지나고, 차디차고 거친 물살을 헤치며 제 집을 찾아갔다. 십리 밖에서도 제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도성을 보일 때, 여행자들은 가던 길을 잠시 멈췄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기를 반기는 상상을 했다. 오른손은 북적거리는 장터에 들려 약과를 사갈 돈이 있는지 품속을 헤집었다.

성 둘레는 원래 사람이 많이 지나지 않아 위험한 곳이다. 혹시나 도망친 도적이 있을까 싶어 포졸들은 끊임없이 도성을 돌아다녔다. 추운 겨울이 오면 포졸들은 추위에 떨었다. 추위로 인해 포졸들의 미간에는 주름살이 가득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들의 주름살도 잠시 부드러워졌다. 매년 봄과 여름마다 한양사람들은 서로 짝지어 성 둘레를 돌았다. 사람들이 떠들썩거리며 지나가는 곳에는 그늘진 곳이 없었다.

한양도성은 1392년에 건국하여 1910년까지 지속된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도읍을 둘러싼 성곽과 문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성곽과 그 안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는데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숭례문·숙정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입니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습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습니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랜기간(1396~1910, 514년)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제1회 순성놀이(2015. 5. 10)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2회 순성놀이(2015. 10. 3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3회 순성놀이(2016. 4. 19)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4회 순성놀이(2016. 11. 5)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5회 순성놀이(2017. 5. 1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6회 순성놀이(2017. 11. 1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7회 순성놀이(2018. 5. 12)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8회 순성놀이(2018. 11. 3)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9회 순성놀이(2019. 5. 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10회 순성놀이(2019. 11. 2)

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수원행궁 - 서장대 - 팔달문

제11회 순성놀이(2020. 6. 22)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제12회 순성놀이(2020. 11. 7)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앞 - 안산 자락길(메타세쿼이아 숲길) - 숲속무대 - 안산정 - 능안정) - 서대문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제13회 순성놀이(2020. 11. 27)

강원도 일원(초지진 - 전등사 - 교동서원)

제14회 순성놀이(2021. 4. 30)

마전교 - 전태일다리 - 오간수교 - 비우당교 - 보문사 - 비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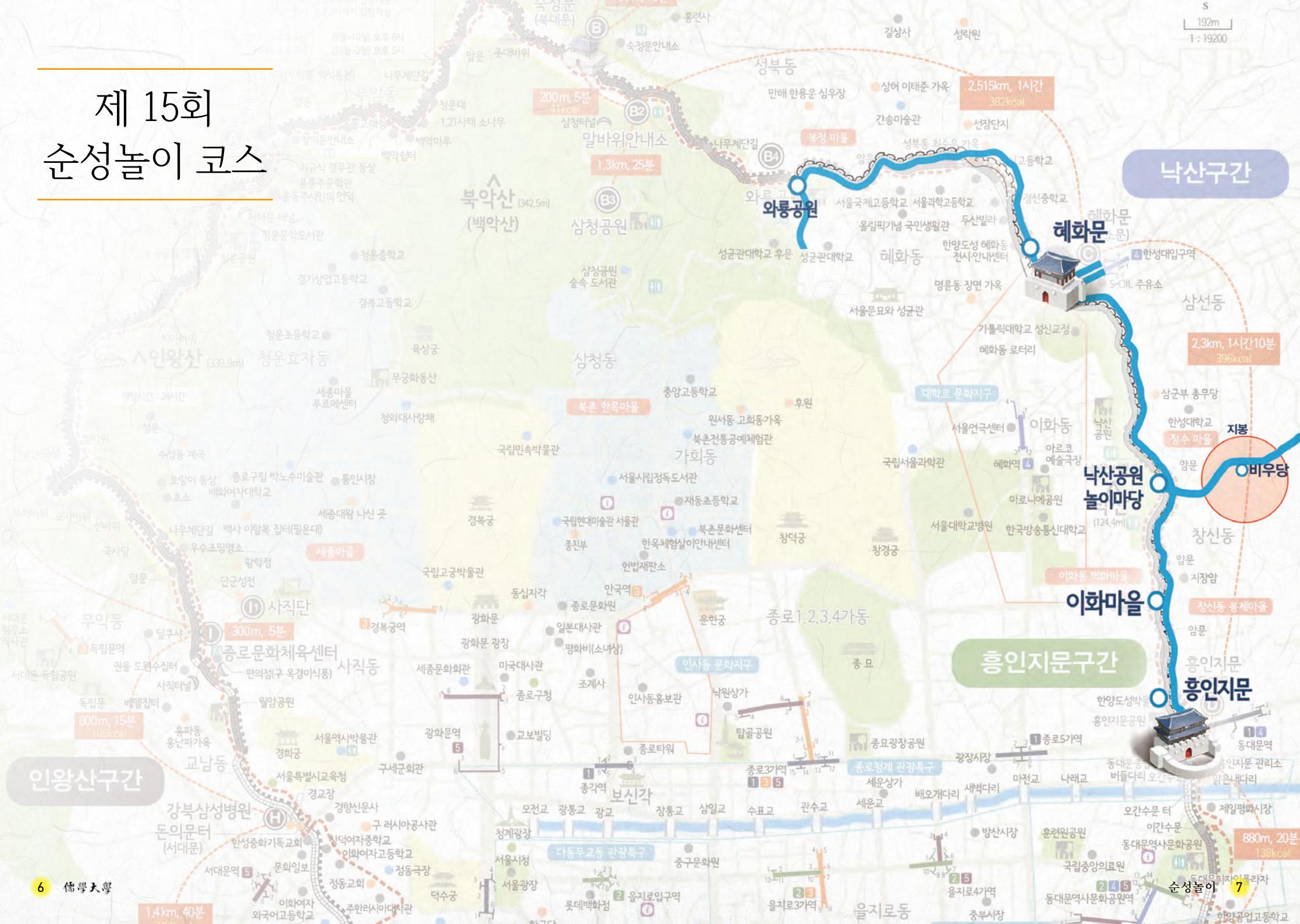
제15회 순성놀이(2021. 11. 19)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제15회 순성놀이 일정(2021. 11. 19)

09:30~10:00	집합 퇴계인문관 정원 앞
10:00~12:30	순성 인솔 교수별 출발 (퇴계인문관-와룡공원-혜화문-낙산-이화마을-흥인지문)
12:30~	종료 흥인지문 부근(조별 해산)

제 15회 순성놀이 코스



01 와룡공원

매해 봄이 오고 벌이 잘 드는 언덕에서부터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같은 화사한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와룡공원을 찾아옵니다. 한양 도성 성곽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다소 가파르지만 수목이 우거져 나무그늘이 많고 곳곳에 쉬어갈 만한 벤치와 정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캠퍼스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02 혜화문(惠化門)

음기가 강하게 흐른다는 이유로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을 닫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양주나 포천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동소문인 혜화문을 주로 이용하여 도성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건축될 때 이 문은 홍화문(弘化門)이라고 불렸지만, 성종 4년에 창경궁을 새로 건립하면서 창경궁 동문에 홍화라는 이름을 내어주고 혜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일제가 전차길을 내면서 홍예(虹霓)만 남아있던 혜화문을 완전히 헐어버렸으나, 서울 성곽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에 복원되었습니다.



03 낙산(駱山)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조선시대 한양 성곽이 낙산 능선을 따라 만 들어졌습니다. 서쪽의 인왕산과 동서로 마주보며 대치하는 산으로, 높이는 약 125m입니다. 산 전체가 노출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 모양이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 또는 낙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숲이 우거지고 야트막한 산으로 산책길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낙산 인근에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인평대군이 거처했던 석양루(夕陽樓)와 이화정, 일웅정, 백림정 등의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세조)에 의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날 때 단종비 정순왕후는 단종과 이별하고 이곳 낙산에 은거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 흥덕이밭

흥덕이밭은 낙산 아래 동송동에 있는 밭입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한 이후, 효종(당시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효종이 심양에 있을 때 따라가 모시던 나인 흥덕이라는 여인이 채소를 가꾸어 김치를 담가서 효종에게 날마다 김치를 드렸습니다. 이에 효종은 볼모에서 풀려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흥덕이의 김치 맛을 잊지 못해 낙산 중턱의 채소밭을 흥덕이에게 주어 김치를 담아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낙산에 “흥덕이밭”이라는 지명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 지봉/지봉유설(芝峰/芝峰類說)

낙산 동쪽 상산의 한 줄기인 ‘지봉(芝峯)’은 조선 중기 실학자 이수광(1563-1628)의 호입니다. 이수광은 세 차례의 걸친 중국 사신에서 얻은 견문을 토대로 1614년 ‘지봉유설’을 간행했습니다. 이수광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조선은 물론이고 여러 국가를 소개하며 당시 백성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항목마다 다양한 내용과 비평·고증을 들어 실학자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서구 문물을 소개한 점 등 한국에서 편찬된 유서로서는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현재 조선고서간행회본과 조선연구회본이 남아 있습니다.



- 비우당(庇雨堂)

비우당은 ‘비를 가리는 집’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실학자인 지봉 이수광(李睟光)이 살던 곳입니다. 낙산 동쪽 상산의 한 줄기인 지봉 아래 있었는데, 이수광의 호 지봉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창신동 쌍용2차아파트 자리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낙산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곳에 복원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청백리로 명성이 높은 유관이 이곳에서 살았는데 지봉이 새자 손수 우산을 받치고 살면서 부인에게 “우산 없는 집은 어떻게 견딜꼬?”라 농담을 하였다는데 ‘유재상의 우산’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외손인 이수광 집안으로 상속되었는데, 그 집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자 이수광이 집을 새로 짓고 그 이름을 비우당이라 하였습니다.



04 이화마을



낙산공원 전망대에서 성벽 바깥 길을 따라 내리막을 걷다보면 잠시 뒤 조그마한 암문 너머로 좁은 골목길이 하나 보이는데, 이 암문 너머로 들어가면 느긋하게 별을 즐기기에 좋은 노변 카페들과 다채로운 벽화, 빈터의 조형물들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 최초의 벽화 마을인 이화 벽화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벽화와 조형물들은 단순히 지역의 시각적 환경만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네 역사와 주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정리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토끼 그림이나 천사의 날개 등은 이화마을을 대표하는 벽화들이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산공원으로 오르는 길에 서면 한적한 마을과 북적거리는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한여름에는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고 합니다.

- 이화장(梨花莊)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로 이곳은 본 건물인 기와집과 부속 건물인 조각정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광복 후 귀국하여 이화장에 살면서 국회의 초대의장과 이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곳 조각정에서 초대 내각을 구성하면서, 현대 한국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내력에 바탕하여 현재는 '이승만 기념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적 497호'에 등록되었습니다. 한편 원래 일대는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신광한의 옛 집터이기도 하며, 인조의 셋째아들 인평대군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동국여지비고』 제택조에 "인평대군의 집은 건덕방 낙산 아래에 용흥궁과 동서로 마주 대하고 서 있는데 석양루가 있다. 기와·벽 등에 그림이 새겨져 있고 또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서울 장안에서도 으뜸가는 집이었다. 지금은 장생전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05 흥인지문(興仁之門)

흥인지문은 한양도성의 8개 성문 중 가장 동쪽에 있는 문으로, 흔히 동대문이나 흥인문으로 불립니다. 흥인의 인은 오행 중 목에 해당하며, 방위로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한양도성 사대문의 나머지 문들과 달리 "지(之)"자가 들어간 이유는 지세를 보완하기 위한 풍수지리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인지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이며, 태조 5년(1396)에 처음 세워진 후 고종 6년(1869)에 개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숭례문과 달리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이 보입니다. 흥인지문 앞에는 반달 모양의 성벽인 웅성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한양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합니다.



안내문

순성놀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순성놀이 시작 전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발열 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순성놀이 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행동은 삼가주시고 담당 교수 및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화를 삼가고 가을날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양현재 사무실 02-760-1320

| 행사 총괄 |

유학대학 학장 및 양현재 전재_신정근

| 기획 및 편집총괄 |

양현재 재감_설준영

| 자료제작 |

양현재 TA_신누리, 양현지, 전창재

| 행정지원 |

유학대학 행정실_실장 최병욱, 차장 박인봉

| 홍보 |

유학대학 유학동양학부 조교_반건희, 박미영

| 표지 붓글씨 |

김진희

| 자료 출처 |

홍덕이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홍덕이발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역차편찬원)

지봉유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봉유설 (두산백과)

사진: [네이버 지식백과] 지봉유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비우당

출처: 낙산공원관리소, 비우당 소개 입간판

이화장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이화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 養賢齋

